

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비법

경·공·한·대·기.

영유아도 어른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
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매일 매일을
권리존중 상호작용으로 채워주세요!



- 경 청하기** | 영유아의 언어적, 비언어적 요구 경청하기
- 공 감하기** | 영유아가 나타내는 정서에 공감해주기
- 한 계설정** |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한계설정하기
- 대 안제시** | 영유아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안제시하기
- 기 다리기** | 영유아의 정서 조절, 한계 수용, 제안 선택을 기다려주기

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상호작용

무시 (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아이의 요구를 거절하며)
“그건 네가 결정할 일 아니야. 엄마, 아빠가 허락해줄 때 해.”

비난 “엄마, 아빠 빨리 회사 가야 해. 너 때문에 회사도, 어린이집도 늦었잖아. 양말 신으라니까. 왜 안 신고 돌아다니는 거야?”

비난·조롱 “신발 제대로 신으랬지! 너 거꾸로 신고 다니다 넘어질 줄 알았어.”

거짓·협박 “너 자꾸 이렇게 말 안 듣고, 울음 안 멈추면 벽보고 서 있게 할 거야!”

거짓·협박 (밥 안 먹는 아이에게)
“밥 하고 반찬 골고루 다 먹어야 TV 보여 줄 거야!”

차별 “동생도 혼자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하는데, ○○이는 왜 혼자 정리 못 하는거야.”

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작용

공감하기 “○○이가 자전거 타러 나가고 싶구나~”

한계설정 “지금은 어두워서 위험해. 내일 오전에 함께 타러 가볼까?”

기다리기 “언제 타러 나가면 좋을지 생각해볼까?”

대안제시 “○○아, 양말 신자~ 양말 신기 힘들면 아빠가 도와줄게.”

한계설정 “신발을 거꾸로 신고 다니면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. 신발을 바르게 신어보자~”

한계설정 “울면서 이야기하니까 ○○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. 울음 그치면 엄마한테 이야기해볼래? 기다려줄게.”

경청하기 “○○이 밥 먹기가 힘들어?”

한계설정 “당근 조금 먹어볼까? 골고루 먹어야 몸이 튼튼해진대~”

대안제시 “밥을 안 먹으면 아빠랑 놀 때 힘이 안날 것 같은데 작게 잘라서 조금만 먹어볼까?”

공감하기 “혼자서 정리하는 게 힘들었구나.”

대안제시 “힘들면 아빠랑 동생이랑 다 함께 정리하자.”



경공한대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?
‘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비법’
자료집 바로가기



보건복지부



한국보육진흥원